

전 남

농작물 CO2 흡수 전남이 최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농작물 재배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연구를 통해 녹색성장 추진지표 개발에 나선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는 최근 벼를 이용해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평가와 역대 기술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강화에 대응해 농업부문의 과학적인 데이터 정립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연구방법은 기술원내 1천983㎡(600여 평) 규모의 시험포장에서 오는 2011년까지 ▲유기물 종류별(볏짚, 보리짚, 녹비작물) ▲재배방법 등 다양한 시험조건에서 벼를 재배해 단

도 농기원, 배출량 억제기술 개발 본격 착수

기후변화 협약 대비 친환경농업 데이터화

위시간단 배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양을 반복적으로 측정·분석해 과학적인 자료를 도출하게 된다.

농업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크게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3종류.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율을 보면 에너지 부문이 84.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공정 11%, 농업·축산 2.5%, 폐기물 2.2%로 나타났다.

농경지에서는 작물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반복되며 50%

는 작물에 축적된다. 메탄은 혐기(嫌氣) 상태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나 가축분뇨 처리과정, 아산화질소는 질소비료의 분해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작물 농업과학원의 '2008년도 주요 작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총 323만6천으로 전국(1천531만)에서 가장 많은 21%를 차지, 향후 온실가스 저감에도 유리한 입장에서 있다.

타 도의 경우 충남 251만3천, 전북 235만5천, 경북 197만9천, 경기 156

만1천, 경남 153만7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가 타 도에 비해 청정환경인데다 온실가스 흡수량이 큰 벼(18만3천630ha)와 보리(2만천999ha), 콩(1만3천424ha)의 재배면적이 훨씬 많고 친환경 농업정책 추진때문으로 풀이된다. 벼는 연간 단위면적(ha) 당 15.3t, 보리 6.9t, 콩 4.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민수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은 "모든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오는 2012년까지 국제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온실가스 배출 통계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녹색전남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용기자 song@



구례 생명체험학교 인기

구례군 생명체험학교가 29일 어린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장승채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체험학교는 지금까지 모두 3천여명이 방문했으며, 장승채실터라 열쇠고리 만들기, 특산물 소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강진 “민관이 함께 만성 주차난 해결”

군 공영주차장 확보... 주민 불법주차 근절 동참

강진군이 대규모 주차장 인프라 구축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낸 강진읍 시가지의 만성적 주차난을 해결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도로폭이 좁아 주차난을 겪어온 강진읍 중앙로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공영주차장 확보에 나서 국비 등 50억원을 투입, 최근까지 중앙로 주변에 공영주차장 4곳(248㎡)과 빈방, 낡은 건물 철거지 등을 활용한 16곳(592㎡) 등 총 면적 2만1천여㎡

를 확보했다. 군은 이와 함께 상가 입주민을 상대로 가게 앞 불법 주차장 근절 등 상생을 위한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상가 입주민들은 '내 가게 앞 불법 주차장은 내가 근절한다'고 나서는 등 주민봉사단을 구성, 불법 주차장 근절을 내걸었다.

군과 경찰도 교통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 주차 차량에 풍선 달기,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 등 캠페인을 병행,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차로에 불과해 평소 불법 주차차로 몸살을 앓았던 중앙로 2km 구간이 맑고거기 정비돼 상가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이같은 불법 주차장 근절이 지속하도록 계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차차와 교통체증으로 도로 기능이 상실될 지경으로 상권까지 크게 위축됐었다"며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주한대사 초청 목포 문화탐방 팸투어

해양문화축제 개막에 맞춰

목포시는 해양문화축제 개막일인 31일부터 이틀간 20여개국 주한 대사관과 내·외신기자 등 50명을 초청해 목포 문화탐방 팸투어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주한 외국 대사 등을 통해 관광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목포 문화·관광 알리기에 나섰다.

프리카 등 20여 개국 주한 외국 대사관과 문화원 관계자와 내·외신 기자 등 각국을 대표하는 여론 주도자 그룹으로 이뤄졌다.

31일 도착할 탐방단은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과 갯바위 문화타운을 둘러보고 목포해양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해상 캐니발과 다양한 해양문화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음 날은 사랑의 섬 의도도를 찾아 해수욕, 한옥민박 마을 등을 둘러보고 갯벌체험도 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해변 원두막서 낭만적 휴가를

신안 비금 하트해수욕장 10동 설치

지난해 '전국에서 휴양하기 좋은 섬 Best'와 전국 해수욕장 평가에서 '가고 싶은 소규모 해수욕장'으로 선정돼 진가를 널리 인정받은 신안군 비금도 하트해변이 이색적인 시설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군은 최근 완만한 경사의 드넓은 백사장에 이국적인 모습을 갖춘 해변원두막 10동을 조성했다. 가로 3.5m, 세로 2.5m 크기의 해변원두막은 대나무와 갈대지붕 등 친환경소재로 만들어 아름다운 해양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모기장과 전기시설은 물론 피크닉 테이블까지 갖춰 이용

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하루 이용료는 3만5천원으로 숙박이 가능하다.

특히 원두막 주변으로 솜바닥 질타후 숨어있는 미니 해변을 끼고 있어 연인들이 타인의 방해받지 않고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 있어 젊은이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문의는 비금면 체육회 김동철(061-262-6685) 씨에게 연락하면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천연의 해양관광자원의 특징을 살려 전국의 많은 연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조완범기자 wncho@



장미재배기술 컨설팅

장미재배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손헌길)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에너지절감 대상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최근 관계전문가를 초청, 장미 재배 기술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곡성군청 제공)

“신안 칠발도 바다새를 보호하라”

번식현황 모니터링... 위협 식물 제거

국내 최대 '바다새 번식지'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 332호로 지정된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에서 철새를 위협하는 외부 침입식물이 퇴출된다.

신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23일부터 칠발도에 서식하는 바다새 번식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염소 또는 사람 등을 통해 섬에 유입된 쇠무릎·속 등 바다새 위협식물을 제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쇠무릎 열매는 포과 형태로 9월에 여무는데 갈고리처럼 생겨 바다에서 활공비행을 위해 발달한 바다제비의 긴 날개에 엉켜 결국 말라죽게 하는 위협식물이다.

칠발도에는 여유공간이 없을 정도로 쇠무릎이 백백하게 자라 바다제비가 풀숲에 있는 둥지에 접근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조사팀은 지난해 조사를 통해 50㎡

의 면적에서 바다제비 21개체가 쇠무릎 등에 날개가 엉켜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칠발도에 사는 바다제비는 주로 해안 절벽 등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류인 말사초 밑에 구멍을 파서 번식하는데 쇠무릎 등 외부 식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바다제비를 속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침입식물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쇠무릎 제거와 함께 바다새 번식 개체수 감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바다제비에 가락지를 부착해 장기적인 번식 성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안=조완범기자 wncho@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a grid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and a list of agents at the bottom.